

시 통해 자아 찾고 행복의 여정 꿈꾼다

첨단1동 시창작교실 '시담' 최양숙·김강호 시인 매주 강의 주부·농민·퇴직 교사 등 다양 백일장·문학상 공모 다수 수상



광산구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시를 공부하는 '시담' 회원들.

강의실 안은 시를 배우려는 문학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비록 수강생은 많지 않았지만 문학의 향기가 그윽했다. 3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문학도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강의 설명에 집중했다.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어둠이 낮게 내린 거리는 불금을 맞아 약속 장소로 가거나, 서둘러 퇴근하는 사람들로 부산했다. 퇴근 무렵이면 차가 막히지만 유독 이날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도로가 붐볐다.

4층 강의실에 들어서자 몇몇의 주민들이 앉아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었다. 최양숙 시인이 공광규 시인의 '시 창작방법' 가운데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쓴다'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시를 공부하는 모임인 '시담'의 회원들이다.

시담은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2019년 시와 시조를 배우려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을 연 시창작교실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최양숙 시인과 김강호 시인이 번갈아가면서 창작과 이론을 강의한다.

강사를 맡고 있는 최 시인은 '열린시조'로 등단해 열린시학상, 시조시학상 등을 수상했다. 정밀하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을 쓰는 시인은 '새, 허공을 뚫다' 등의 시집을 발간했다. 김 시인은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왔으며 '땀뚱한 편지' 등의 작품을 발간하는 등 호방하고 역동적인 시를 쓰고 있다.

사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탓에 거의 모임을 갖지 못했다. 회원들은 채팅방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

다. 창작한 시를 올리면 그것을 토대로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올해부터 다시 시와 시조 창작 교실이 시작됐고, 회원들은 그동안의 갈증을 풀기라도 하듯 문학공부에 매진했다.

기자가 찾은 날은 정동희 수강생이 쓴 시를 토대로 합평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양숙 시인은 "정동희 씨의 시는 주역을 공부하신 분답게 자연과 내통하는 정서를 풀어내는 힘이 있다"며 "굉장히 독특 튀는 시상과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구체화하는 자질이 있다"고 칭찬을 했다.

회원들은 주부와 교사, 퇴직 공무원, 농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다. 또한 특이한 이력을 지닌 이도 있는데 스님도 한 분 있다고 한다.

최 시인은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문학교실을 운영했다. 학교도, 단체도 아닌 일반 주민을 모아놓고 창작을 가르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 등을 설명해줬더니 어떤 수강생은 울기도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나이와 직업, 살아온 삶이 다르지만 수강생들은 더듬더듬 그렇게 시를 배워나갔다. 시를 대할 때만큼은 모두들 순수함 자체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시가 지닌 힘을 발견한다고 한다.

"언택트 시대, 2년 가까이 나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내 머릿속에 내가 실 곳을 남겨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시담'에서 저는 제게 작은 이벤트를 선물하는 기분입니다. 글이란 나를 잃어버린 나를 위로하는 행복한 여정입니다."

수강생 이미에 씨의 말이다. 시를 매개로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행복을 꿈꿀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2020년 후반부터 전국에서 열리는 백일장 및 문학상 공모에서 수상을 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박복숙 씨는 제8회 이은방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해남 전국시조 백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미처 밟도 떴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이라는 길에 들어서서 바람에 헤매기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알아가고 조금씩 느끼는 단계가 된 듯해 너무도 기쁩니다. 두 선생님이나 고마울 따름이지요." (박복숙 씨)

강의를 통해 등단한 시 낭송가 노경호 씨는 시담이 낳은 스타다. 그는 "한 주간 사회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창작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무엇보다 마음이 넓어지는데다 정제된 언어로 어떤 모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발백일장, 진주시조백일장, 토지문화제 등 다양한 문학제와 백일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강의실을 나오며 시담의 내일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해외서도 연주된다

광주문화재단 창작관현악곡 제작 리 이어 19일 우즈벱, 12월 12일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관현악곡이 해외에서도 연주돼 광주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80년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창작관현악곡을 제작, 해외 오케스트라 공모를 통해 올해 해외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진행된 해외연주단체 공모에는 일본, 파라과이, 러시아, 우즈벱키스탄, 에콰도르 등 국가에서 총 7개 오케스트라가 참여했다. 그중 3개 단체를 선정해 연주회를 추진한 것.

첫 번째 연주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퍼시픽 심포니가 지난 10월 22일 블라디보스톡 필하모닉 홀에서 황호준 작곡 '빛이 있는 마을' 작품을 아나톨리 스피르노프 지휘로 펼쳐졌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크 지역 필하모닉 협회 예술감독인 아나톨리 스피르노프 지휘자는 볼고그라드 극장의 상임 지휘자 등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연주회는 오는 19일 우즈벱키스탄 국립 교향악단이 Youth Creativity Palace에서 김 신 작곡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을 연주한다. 지휘를 맡은 카롤리나 우리바예프는 우

즈벱키스탄 국립음악원 총장을 지냈으며 우즈벱키스탄 영예로운 예술가상 수상(2014) 등 국제음악대회 페스티벌에서 수상했다.

세 번째 연주회는 오는 12월 2일 일본 도쿄 Musashino Cultural Center Concert Hall에서 소가 다이스케의 지휘로 도쿄 프라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황호준과 김 신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지휘자 소가 다이스케는 세계 양대 지휘자 콩쿨이라고 할 수 있는 브장송 지휘자 콩쿨과 킬리온도라신 지휘자 콩쿨에서 우승한 실력자다. 오사카 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를 맡는 등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단은 해외 연주회 공연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지난 7월 국내연주단체 공모를 추진, 총 17개 팀 중 5개 팀을 선정해 타지역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관현악곡 연주를 이어가고 있다. 선정단체는 군포시립합창단(경기 군포), 모스틀리 뮤직(서울), 밀레니엄심포니(서울), 디오오케스트라(대구), 목포시립교향악단(목포) 등이며 이들 중 디오오케스트라(26일 예정)와 목포시립교향악단(12월9일)이 공연을 앞두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도쿄 프라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9번' 연주

조국영 '전곡시리즈 IV' 6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시리즈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조국영(사진)이 네 번째 무대를 준비했다. 조국영 바이올린 독주회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시리즈 IV'가 오는 6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조 씨는 이날 공연에서는 바이올린 소나타 '10번'과 '9번'을 차례로 연주한다.

베토벤은 1797-1803년 9개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다. '작품 번호 96'으로 발표된 '10번'은

베토벤의 마지막 바이올린 소나타로 전 4악장을 도입해 풍부한 곡상을 담았고 전원적인 부드러운 세계를 조용하게 표현하고 있다. '작품 번호 47'로 발표된 '9번'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씨는 전남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했으며 호남예술제 등에서 입상했다. 이후 브뤼셀 왕립음악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 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화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전남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피아니스트 이지은이 함께한다. 전석 2만원. 문의 010-4301-192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문화전당, 점자명함 만들기 체험행사

4~6일 라이브러리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진)이 제95주년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을 기념해 4일부터 6일까지 ACC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점자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손끝으로 읽는 세상'을 운영한다.

먼저 ACC는 행사기간 동안 참여자가 명함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점자로 새기는 점자명함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한 사람 당 명함 10매를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명함을 지참할 땐 30매까지 제작 가능하다.

행사 둘째 날인 5일엔 '공감은 상상력에서 시작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펼쳐진다. 정아영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과 희망을 얘기한다.

6일엔 점자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4개의 점형 음독법을 익힌 뒤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손수건에 수를 놓아 점자의 감촉을 느껴볼 수 있다. 전당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2-601-403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bonng Solar Energy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